

황금빛 구렁이가 살았던 느티나무

지정번호	강원-횡성-10	강원 횡성군 공근면
지정년도	1982	청곡리 371
관리기관	횡성	37° 33' 06.86" N
수령	360년	127° 58' 29.13" E
수고	28m	
흉고둘레	10.3m(전체 외부)	



농로과 지방도로에 접하여 있는 보호수(강원-횡성-10호) 느티나무는 마을 가옥과 멀리 떨어진 밭과 벌판 사이에 홀로 서 있다. 느티나무는 농로에서 보면 사방이 열린 곳에 높이 솟아 있지만 지방도로가 지나가는 곳과 인접하여 있으며, 줄기 밑쪽이 굽어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360년이다. 나무높이는 28m, 가슴높이둘레는 3갈래 외부 전체가 1,030cm, 밑동둘레는 910cm 정도이다. 원줄기는 밑동에서 3갈래로 완전히 갈라져 3그루처럼 보인다. 갈라진 2줄기는 높이 1.5m 정도에서 각각 2줄기로 다시 갈라져 비스듬히 퍼져 있다. 때문에 줄기는 높이 7m 정도에서 굽은 철삿줄이 서로의 줄기를 당기는 보호를 받고 있다. 철지주도 세워져 있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뱀과 관련한다. 6·25한국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이 느티나무와 그 주변에서 뱀의 출몰이 많았다. 뱀 중에서도 구렁이가 종종 나타났다. 특히 이 느티나무 줄기에는 황금빛의 금구렁이가 살고 있었다. 이 금구렁이는 여름이 시작 될 때 나타나서 마을 주민의 눈에 자주 띄면 흉년(가뭄)이 들거나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지난 1950년 6월 중순에는 금구렁이가 밤낮으로 출몰이 많았다. 크게 놀라게 하였던 순간은 주민 몇 명이 저녁을 먹고 난 후에 이 느티나무 밑에 앉아 쉬고 있는데, 갑자기 가지 줄기에 있던 금구렁이가 쉬고 있는 사람 등 위로 떨어진 일이었다. 며칠 후 6·25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느티나무 주변은 정자, 의자 등 쉼터가 잘 만들어져 있고, 규모가 있는 임시 화장실까지 갖춰져 있다.